보도 참고

* 2014년 10.30일(목) 10시 30분 이후 보도 요망

대한민국, 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

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

2014. 10. 30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독일 경제의 부활과 경쟁력 ····· 2

Ⅲ. 국내 현황 분석 및 시사점 ····· 4

Ⅳ.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과제 ····· 10

1. 히든챔피언 후보 지원체계 정비 ····· 11

2.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기반 확충 ····· 14

3.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화 촉진 ····· 17

4. 인재육성 및 장기재직 여건 조성 ····· 20

5. 히든챔피언 육성 정책인프라 구축 ····· 24

Ⅴ. 기대효과 및 실천계획 ····· 26

Ⅰ. 추진 배경

'히든챔피언'으로 불리는 **글로벌 경쟁력**을 갖춘 **중소·중견기업**은 한국경제의 중추로서, **창조경제 시대의 新성장동력**으로 부상

□ **독일의 경우**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**나홀로 성장을 거듭***하면서 독일 경제의 경쟁력을 확인

*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**독일의 경제성장률은 4.0%**로 미국(2.5%), 영국(1.7%), 프랑스(1.7%) 등의 선진국을 압도('10년 기준)

* 독일의 고용률 지속 증가 : ('09) 68.7% → ('11) 71.1% → **('13) 72.3%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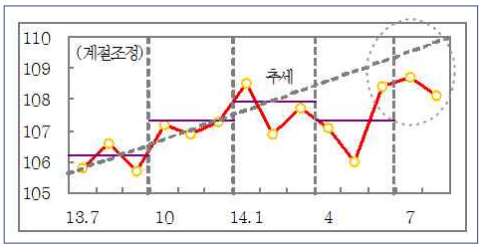
□ 반면, **우리 경제**는 대·중소기업간 양극화*, 수출 의존형 성장구조 등으로 인해, **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위기**에 직면

* 10대 기업 영업이익 비중(韓銀) : ('11) 35% → ('12) 40% → ('13) 46%

○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, **우리경제의 회복모멘텀**이 **미약**하고, **고용없는 성장의 장기화***가 우려

* '13년 청년층(15~29세) 고용률은 39.7%로, 사상 처음 30%대로 하락(통계청)

전산업 생산지수



□ 대기업 주도의 **'산업경제'** → 중소·중견기업 중심 **'창조경제'로의 혁신**은 한국경제의 百年大計를 위한 **시대적 사명**으로,

○ 우리 중소·중견기업들이 **"글로벌 히든챔피언"**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, **균형적·누적적 혁신**을 뒷받침하는 **정책처방 시급**

◇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**정책·제도의 '선택과 집중'**을 통해, 유망 중소·중견기업의 **글로벌 핵심역량 제고방안** 마련

Ⅱ. 독일 경제의 부활과 경쟁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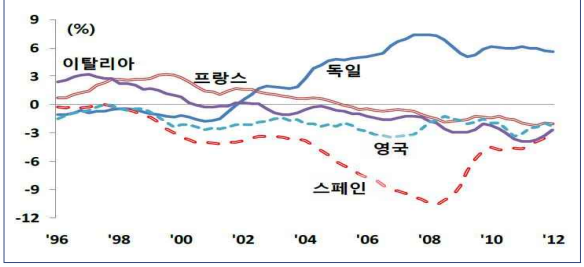
1 독일 경제의 부활과 히든챔피언

□ 독일 경제의 부활 : 유럽의 '病者' → 유럽의 '성장 엔진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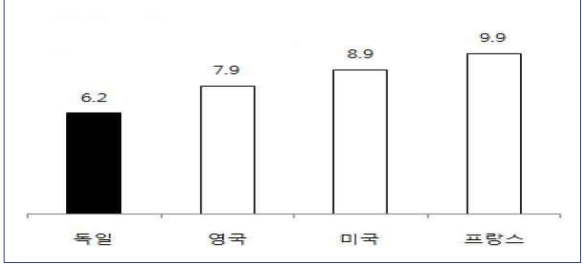
○ 독일은 '09년 글로벌 위기 이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**高성장·低실업 상태**를 구가하여, **세계경제의 '우등생'**으로 부상

* '10~'12년간 독일은 **GDP 대비 6.5%**에 달하는 **경상수지 흑자**와 **6.2%의 낮은 실질실업률**('90년 통일 이후 최저)을 기록

GDP대비 경상수지 추이



실업률('10~'12 평균, %)



□ 히든챔피언* 중심의 중소·중견기업이 독일 경제 회복을 주도

※ H. Simon **선정기준** : ①세계시장 점유율 1~3위 또는 소속대륙 시장점유율 1위, ②매출액은 50억유로 이하, ③대중인지도가 낮아야 함

○ 연이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, **미텔슈탄트*(중소·중견기업)의 강한 경쟁력**이 독일의 **경제 성장과 고용안정을 견인**

* 獨 미텔슈탄트 기준 : (종업원) 500명 미만, (매출액) 5천만 유로 미만
- 기업수는 320만개 (99.7%), 고용인원은 2,140만명 (79.2%) 차지

○ H. Simon은 미텔슈탄트에서 성장한 **히든챔피언의 절반이 독일에 집중**되어 있으며, 이들이 **독일 경제의 경쟁력 원천**이라고 주장

국 가	**독일**	미국	일본	스위스	이태리	중국	**한국**
순 위	**1**	2	3	5	6	8	**13**
히든챔피언 수	**1,307**	366	220	110	76	68	**23**

2 독일 히든챔피언의 경쟁력 요인

1 압도적 기술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개척

○ 전문화된 **틈새시장(Niche Market)**을 개척하여 **세계적 기술력을 축적**하고, 사업 **초기부터 해외시장 적극 진출**

* 히든챔피언의 74% 이상이 창업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 추진 (H. Simon)

2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·공급

○ 독일은 **'이원적 직업훈련(Dual system)'** 및 **'마이스터 제도'** 등을 통해, **숙련된 전문인력을 꾸준히 공급**하는 구조 확립

* 고등학생의 60%가 일·학습 병행훈련을 받고, 졸업후 58%가 바로 취업

3 안정적 장기적 경영전략 및 관계형 기술금융

○ 가족기업*이 대부분인 히든챔피언은 **장기적 관점의 내실 경영**을 지향하고, 지역은행과 **신뢰에 기반한 자금조달체계** 구축

* 가족기업은 독일 기업의 95%를 차지하고, 기업수명은 평균 85년 내외

4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

○ 독일 중소·중견기업들은 **지역별로 클러스터를 형성**하여, 기업 **상호간 협력** 및 기술표준화 등 **공통적 문제 해결**

* '13년 현재 독일 전역에 **327개의 산업클러스터**가 왕성하게 활동 중

5 근본적인 경제개혁 정책 수립 및 지속적 추진

○ **슈뢰더 총리**는 "Agenda 2010" ('03.3)과 "Hartz 입법" ('03~'05)을 통해, **노동시장 유연화**와 **사회보장제도 혁신 정책** 수립·시행

○ 후임 **메르켈 총리**도 **전임자의 개혁안에 공감**하고, 이를 **지속 추진**

Ⅲ. 국내 현황 분석 및 시사점

◇ H. Simon의 **'히든챔피언'** 기준(세계시장 점유율 1~3위)은 지나친 **단순화 및 일반화**로 인해 **실제 객관적 측정 곤란**

* "어느 산업분류수준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측정하는가"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(광운대 이 홍 교수)

◇ 국내에 **23개 히든챔피언**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(H. Simon), **관련 자료가 상당히 부정확**한 것으로 확인

* **'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** 자료('13, 산업부)를 분석해 보면, 세계시장점유율 1~3위 이내인 **중소·중견기업은 198개**

⇒ H. Simon이 제시한 **핵심 기준을 유지**하면서,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**국내 현실에 적용**할 수 있는 **대안 마련 필요**

1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정립

1 세계시장 지배력 : "세계시장 점유율 1위~3위" (HSK 10단위*)

* HS Code : 세계관세기구(WCO)에서 제정한 HS 협약에 따른 6단위의 국제공통 품목분류체계로서, 우리나라는 이를 세분화한 10단위 HSK 사용

○ H. Simon의 히든 **"챔피언"** 개념의 **핵심적 요소**로서 우선 활용

2 중간규모 기업군 : 일정 규모 이상의 "중소·중견기업"

○ **Hidden** (= 잘 알려지지 않은, 매출 50억 유로 이하) 개념을 고려하여,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**중소·중견기업에 한정**

○ 다만, 지나친 시장세분화에 의한 **영세기업**의 히든챔피언 **편입 방지**를 위해, **최저 매출(1백억원 이상) 요건** 추가 설정

3 집중적 연구개발 : 매출액대비 R&D 비중 "2% 이상" (3년 평균)

4 글로벌화 지향성 :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 "20% 이상" (3년 평균)

○ 히든챔피언의 **핵심역량**을 '연구개발'과 '글로벌화'로 판단하고, 그 **하한선**을 **독일 히든챔피언 평균의 1/β 수준**으로 설정

* 獨 히든챔피언(평균) : 매출액 대비 **R&D투자 비중 6.0%, 수출 비중 62%**

5 인재육성 친화도 :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 "업종평균 이상"

○ 기술·수출 등 히든챔피언 핵심역량의 공통분모인 **우수한 인재**에게 **양질의 일자리를 제공**하는 척도*로서 **임금수준 등 고려**

* 기업 인적자원 개발체계, 근로복지 수준 등의 정성적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

6 독자적 성장기반 :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"50% 미만"

○ 주력 제품(또는 서비스)의 납품구조가 **특정한 대기업에 종속**되어 있는 경우에는, **한국형 히든챔피언에서 제외**

* 「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설정 및 검증 연구」(광운대 이 홍 교수, '14.6)

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(안) 개요

핵심 개념	판단기준(안)
① 세계시장 지배력	• **세계시장 점유율 1~3위** (HSK 10단위)
② 중간규모 기업군	• **일정 규모*** 이상의 중소·중견기업 * 매출 1백억원(3년 평균)
③ 집중적 연구개발	• 매출액대비 **R&D 비중 2%이상** (3년 평균)
④ 글로벌화 지향성	• 매출액대비 **수출 비중 20%이상** (3년 평균)
⑤ 인재육성 친화도	• 매출액대비 **인건비 비중 업종평균 이상**
⑥ 독자적 성장기반	• 국내 **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% 미만**

※ 향후「히든챔피언 육성·지원 협의체」등을 통해, 구체적 판단기준·방법을 최종 확정

2 히든챔피언 현황 및 취약 원인

1 한국형 히든챔피언 현황 : 63개사

현재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(326개, 산업부) 및 외감법인 공시정보 (6.9만개, 한국기업데이터)를 바탕으로 하여 산출

○ (세부기준 ①·②) 현재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중에서 **세계시장 점유율이 1~3위인 중소·중견기업은 198개**

○ (세부기준 ③·④) 이중에서 3년 평균 **R&D 비율 2% 이상**이고, **수출액 비율 20% 이상, 최저 매출액 (1백억원 이상) 조건**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**63개**

* ⑤ 인재육성 친화도, ⑥ 독자 성장기반 조건은 기업 제출자료를 통해 추후 검증

2 우리나라 히든챔피언의 취약성

○ 독일 경제규모* (우리나라 GDP의 3배)를 감안하더라도, **히든챔피언 기업 수는 20배 이상**의 격차가 존재 (獨 1,307개 ≫ 韓 63개)

* 명목 GDP ('13, IMF) : 독일 3조 6,360억불 > 한국 1조 2,218억불

○ **매출액 대비 수출·R&D 비중은 독일 기업 수준과 비슷**하나, 매출, 고용, 업력 등의 **규모 측면은 상대적으로 취약**

독일 vs 한국의 히든챔피언 비교



3 국내 히든챔피언의 취약 원인

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**짧은 산업화** 과정에서, **기업 핵심역량의 체계적 축적이 부족**하고 **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미흡**

① 뒤늦은 산업화로 인한 짧은 근대 기업 역사

○ **약 200년**에 걸친 산업화 역사*를 가진 **독일**과 달리, **국내 중소·중견기업**은 불과 **반세기 만에 압축적 성장**을 경험

* 1834년 관세동맹(Zollverein) 성립 → 독일 제국의 경제적 통합 및 개발 추진

② 중소·중견기업 내부에 축적된 핵심역량 일천

○ 직업교육과 기술인 경시 풍조, 대기업과의 근무여건 격차 등으로 인해, **중소·중견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곤란**

○ 선진국대비 75%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중소기업 기술수준 등 **자체적인 글로벌화 역량도 부족**한 실정

③ 정책목표 혼선 및 육성·지원체계의 비효율

○ 정부·정책금융기관 등이 **유사한 시책*을 앞다퉈 도입**했지만, **통합적 컨트롤타워가 부재**하여 시책간 **연계·조정 부족**

* 현재 정부, 공공기관 등 **10개 기관**에서 **12개 지원사업** 시행중

④ 기업 생태계*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점 상존

* **기업 생태계**란 「생산자와 경쟁자,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호작용하는 조직과 개인에 기반을 둔 경제공동체」를 의미 (Moore, 1996)

○ 국가 혁신체계를 구성하는 **산학연 간의 유기적 협력이 미흡**하고, 소수 **대기업 의존적*** 구조로 인해 **외부 충격에 취약**

*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기업중 **삼성전자**가 매출액 35%, 영업이익 63% 차지('13)

3 시사점 및 장기 정책방향

□ 독일 히든챔피언의 경쟁력은 **장기간 축적된 경영전략과 숙련인력 및 기술**, 노동시장 개혁 등 **제반 경제정책의 상승작용 결과**

○ 따라서, **우리나라의 제도 및 경제 여건을 고려**하여, **장기적 관점**에서 **기업생태계의 근본적 체질개선**이 반드시 전제될 필요

❶ 제조업 경쟁력 고도화 및 산학연간 유기적 협력

○ 독일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**Industry 4.0전략**('12)을 시행 중이며, 활발한 **산학연협력 클러스터**(327개)가 이를 뒷받침

⇒ **"제조업 혁신 3.0 전략"**('14.6) 및 **실행대책 수립·추진**('14.하)

❷ 명문 장수기업 육성 및 "관계형 기술금융" 확산

○ 독일 히든챔피언 중에는 **장수기업으로 성장한 '가족기업'**이 많고, 지역은행과 장기적 신뢰에 기초한 **안정적인 경영자금 조달**

* 히든챔피언 (2,734개, 평균업력 66년, 100년 이상 38%)의 2/3가 가족기업
* 5년 이상 장기대출 비중 ('12, 韓銀) : 독일 76.8% ↔ 한국 22.0%

⇒ **"명문 장수기업 육성방안"**('14.9) 및 **"기술금융 활성화 방안"** 마련('14.하)

❸ 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

○ **독일 히든챔피언**은 공작기계, 부품·소재 등의 특화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**대기업과 대등한 협력관계 형성**

⇒ **「제3차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」** 수립·추진('14.하)

◇ 이상의 핵심 정책방향은 **"국가적 개혁 아젠다"**로서, **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**을 통해 **적극 추진 중**에 있음

◇ 동 대책은 **제조업 혁신 3.0 전략의 일환**으로, 히든챔피언 육성 관련 **기업정책의 효과성 제고 등에 중점**을 두고 마련

참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실태조사

◇ **한국형 히든챔피언** (응답기업 44개사)의 **성공 노하우 및 성장 애로**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('14.10, 한국산업기술진흥원)

□ 응답기업 (44개사) 주요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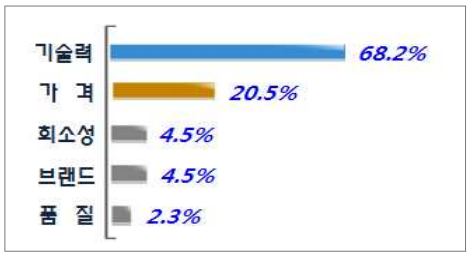
○ **중소기업이 2/3** (30개사) 이상이며, **수도권에 27개사** (61.4%)가 입지

○ **업력 20년 미만** 기업이 **다수** (27개사)이며, **기업간 거래 (B2B)**가 응답기업의 **대부분 (40개, 90.9%)**을 차지

□ 히든챔피언으로의 성공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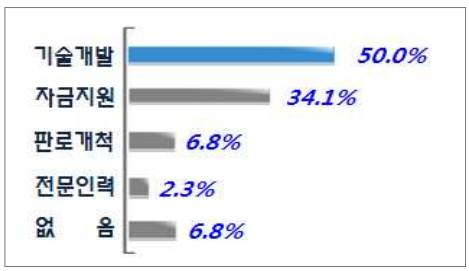
○ **(가장 큰 경쟁력)** 저렴한 가격 보다 대부분 기술력·희소성 등 **비가격적 측면*에 강점**을 보유

* 기술력 68.2% (30개사) > 가격 20.5% (9개사)



○ **(도움된 정부지원)** 대부분의 기업이 **정부시책 수혜 경험**이 있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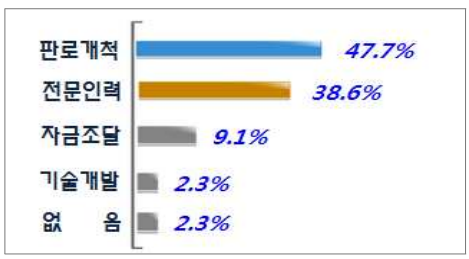
- R&D·자금지원은 만족도가 높은 반면, **판로·인력 지원은 미흡**



□ 기업 성장과정에서의 애로요인

○ 히든챔피언의 **가장 큰 성장 걸림돌**은 수출을 포함한 **판로개척**이었으며, **전문인력**도 상당한 애로를 호소

* 판로 47.7% (21개사), 인력 38.6% (17개사)



Ⅳ.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과제

◇ **기업규모**에 기초한 "中小 → 中堅 → 大기업"으로의 **성장사다리 정책 패러다임**을 **질적 차원**(글로벌 경쟁력)**으로 전환**

기 본 방 향

1 히든챔피언 관련 정책 및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

○ 히든챔피언 **관련 시책**을 기관별 분절적 운영 → **글로벌 성장 단계**를 고려한 **2단계 맞춤형 지원체계**로 재정비

2 R&D · 인력 등 중소 · 중견기업의 핵심역량 배양

○ 유망 중소 · 중견기업들이 **세계적 기술력과 품질**을 갖출 수 있도록, **R&D · 수출 등**의 지원 프로그램 **고도화**

○ 현장밀착형 기술 · 무역 **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과의 매칭**을 강화하고, 기업 수요를 반영한 **인재육성 인프라 확충**

3 정책거버넌스 확립 및 히든챔피언 성공경험 확산

○ 히든챔피언 **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**하여 기관간 연계 · 조정을 강화하고, 한국형 **히든챔피언 발굴 및 인센티브** 부여

◇ 이번 대책은 **한국형 히든챔피언**을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**중소 · 중견기업의 롤 모델**(Role Model)로 제시하고,

◇ 유망 중소 · 중견기업의 **현장 애로**를 고려한 **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**하여, **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을 가속화**하기 위함

1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원체계 정비

◇ H. Simon 교수의 **히든챔피언 개념**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, 관련 정부부처에서 **유사한 시책***을 개별적으로 **도입·운영중**

* 글로벌 강소기업('10) → 월드클래스 300('11) → 글로벌 전문기업('13)

◇ **공급자 중심**의 프로그램 설계로 인해, 기업 **성장단계에 따른 다양한 애로 요인**에 대한 **제도적 공백**이 우려되고,

○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의 **차별성 부족**으로 인한 **비효율** 예상

⇒ 혁신형 중소기업부터 성숙단계의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**빈틈없는 "히든챔피언 후보기업*" 맞춤형 지원체계**를 마련

※ 월드클래스300 등 **"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선정기업"**을 의미

1 「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」 통합 운영

히든챔피언 육성 목적의 **정부지원 프로그램**(산업부·중기청)을 중소·중견기업의 **'글로벌 성장단계'**를 고려하여 **합리적으로 재편**

○ **(통합공고)**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**3개 정부 프로그램**을 **「(가칭)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」**으로 **통합 공고**('15.3)

통합공고 대상사업 현황('14년 기준)

구 분	지원대상	비 고
글로벌 강소기업 (중기청)	① 수출 500만불~5,000만불 중소기업 ② 기술성(45%), 마케팅(30%), 경영·관리(20%) 등 평가	* 380개(중소)
월드클래스 300 (중기청)	① 매출 400억원(소프트웨어 분야 100억원)~1조원 기업 ② 최근 3년 평균 R&D투자비중 2%이상이거나, 5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%이상 중소·중견기업	* 156개 - 중소 : 54개 - 중견 : 102개
글로벌 전문기업 (산업부)	① 최근 3년간('11~'13) 연간 직수출액이 2천만불~1억불 구간을 1회 이상 경험한 ② 중소·중견기업	* 68개 - 중소 : 38개 - 중견 : 30개

○ **(사업재편)** 기업 규모 및 글로벌 역량에 따라 **2단계 지원체계 (① 글로벌 도약 → ② 글로벌 성장 단계)**로 재편 ('15.1)

- **글로벌 도약단계 :**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**'글로벌 강소기업'으로 육성**하고, 저변 확대를 위해 **'지역 강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*' 신설**

* 중기청-지자체(비수도권) 공동 매칭을 통해, 지역 기반 강소기업 발굴·육성('15. 100억원)

- **글로벌 성장단계 :** **'월드클래스 300*'**과 **'글로벌 전문기업**'** 사업의 **지원대상을 공동선발**하고, 지원 프로그램도 **연계·고도화**

* **월드클래스300 목표 재검토** : (현재)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300개 발굴 → **(수정) 한국형 히든챔피언 300개 육성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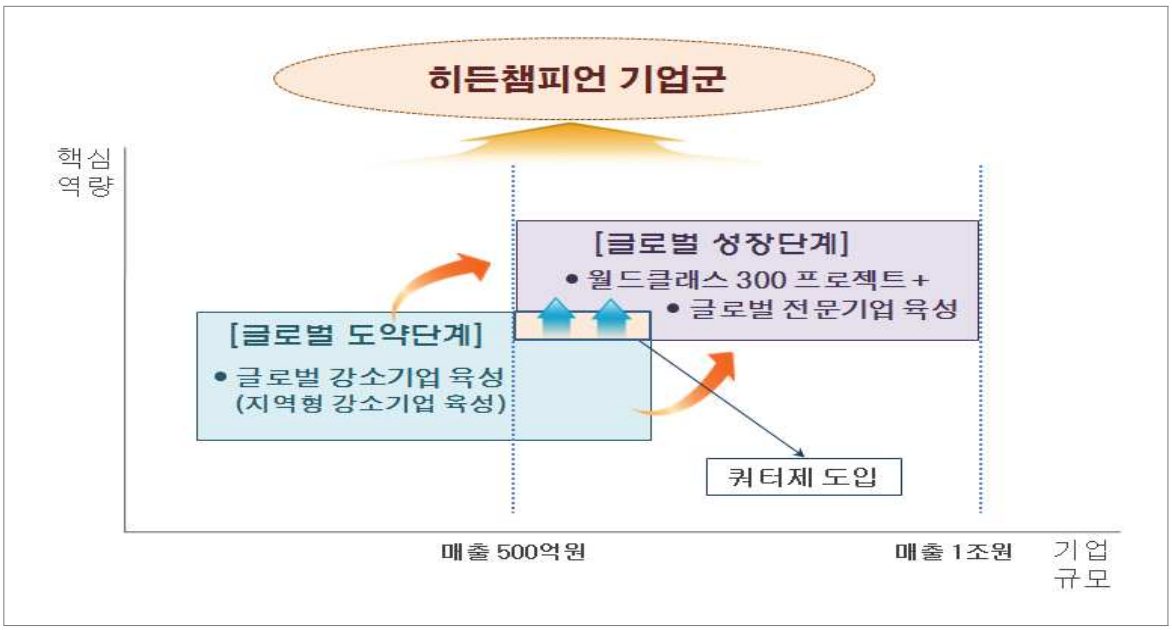
** **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목표** : '17년까지 **수출 1억불이상 기업 400개** 달성

○ **(쿼터제도)** 중장기적 **'한우물 파기'**가 가능하도록, 글로벌 도약 → 성장 단계로의 **연속적 지원 장치 마련** ('15.2)

- **글로벌 성장단계** (월드클래스 300 + 글로벌 전문기업) **신규 선정시, 글로벌 도약단계 우수 졸업기업**에 대한 **지정쿼터** 배정

* 1단계 졸업기업, 2단계 지원규모 등을 고려, 매년 산정하여 통합공고에 반영

『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』 통합 운영 개관



2 단계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재설계

○ **(신청자격)**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선별을 위해, **히든챔피언 핵심 개념**과 **단계별 신청자격 연동*** ('15.1)

* 집중적 연구개발(R&D), 글로벌화 지향성(수출) 등의 개념·기준 활용하되, 검증이 어려운 세계시장 지배력(점유율)은 신청자격에서 제외

- **시장 세분화**를 특징으로 하는 히든챔피언 **규모의 광범위성**을 감안하여, **정책대상을 폭 넓게 설정** (매출 100억원~1조원)

- **매출액** 기준을 활용하여 단계별 **참여기업群의 범위를 설정***하고, **수출 및 R&D 비중**을 통해 **핵심역량 검증**

* 다만, 기업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**'의도된 중복'**을 허용

성장단계별 신청자격 (안)

구 분		① 글로벌 도약단계	② 글로벌 성장단계
해당사업		**글로벌 강소기업** (지역형 강소기업)	**월드클래스 300,** **글로벌 전문기업**
신청자격	매 출	• **100억원~1천억원** 중소기업	• **400억원~1조원** 중소·중견
	수 출	• 매출액 대비 **10%** 이상	• 매출액 대비 **10%** 이상
	R&D	• 매출액 대비 **1%** 이상	• 매출액 대비 **1%** 이상

○ **(지원내용)** 기업규모, 글로벌화 단계 등에 따라 **지원내용 보강**

- 글로벌 도약·성장단계 모두 **3大 정책수단**(R&D + 해외마케팅 + 컨설팅)을 **패키지 형태**로 지원하되, **규모별로 차등화**

* R&D : (도약단계) 단기 상용화 개발, (성장단계) 중장기 핵심기술 개발

- **성장단계**에서, 월드클래스 300(R&D+마케팅)과 글로벌 전문기업(컨설팅+인력) 사업의 **핵심 프로그램 중심으로 통합 지원**

2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기반 확충

◇ 독일 히든챔피언은 **전문적 틈새시장**(Niche Market)에서, 고부가가치 **명품**(名品)**을 개발***하여 **압도적 시장경쟁력****을 확보

* 하버드 비즈니스리뷰는 이를 **'극단적 집중**(extreme focus)'이라고 표현

** 獨 히든챔피언들의 평균 **세계시장 점유율 33%**, 유럽시장 점유율 38.4%

◇ 우리나라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, 대량생산 방식의 **박리다매**(薄利多賣)**형 수익구조**로 인해, **R&D 재투자가 저조**

* R&D 투자비중('12) : 獨 히든챔피언 6.0% ≫ 韓 中小 1.13%, 中堅 1.40%

⇒ 유망한 중소·중견기업들이 **글로벌 시장을 선점**할 수 있도록, **독자적 신기술** 및 **핵심 소재·부품기술 개발** 유도

1 히든챔피언 육성 전용 R&D프로그램 재설계

○ **글로벌 성장단계별 '전용 R&D 프로그램' 매칭** ('15.2, 중기청)

* ① 글로벌 도약단계 → 글로벌 강소기업 R&D
② 글로벌 성장단계 → 월드클래스 300 R&D

- 특히, '글로벌 강소기업 R&D'를 **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육성형으로 전환***하여, 맞춤형 기술개발 서비스 제공

* (현행)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기업 + 수출 300만불 이상인 혁신형기업 포함
→ (개선) '글로벌 강소기업 선정기업'에 한해 맞춤형 지원

○ **각 단계별 지원내용**(R&D기간·한도 등)**을 차별화** ('15.2, 중기청)

- **글로벌 도약 R&D** : 개발기간 **2년 이내**의 **단기 상용화에 집중**하고, 총개발비의 **60% 이내**에서 **최대 10억원**까지 지원

- **글로벌 성장 R&D : 중장기 핵심기술 개발**을 통하여, **압도적 경쟁력 확보**를 위한 마중물 제공 (총개발비의 50%이내, 최대 75억원)

히든챔피언 육성 전용 R&D 지원체계 (안)

구 분		글로벌 도약단계 (글로벌 강소기업 R&D)	글로벌 성장단계 (월드클래스300 R&D)
지원체계	R&D성격	• **단기 상용화** 및 제품혁신	• 중장기 **핵심기술** 확보
	개발기간	• **2년 이내** (0.5년 + 1~1.5년)	• **5년 이내** (1년 + 3~4년)
	지원조건	• 총개발비의 **60%이내**에서, **최대 10억원**까지 지원	• 총개발비의 **50%이내**에서, **최대 75억원**까지 지원

2 '한우물파기*'가 가능한 R&D 지원체계 구축

※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신제품보다, 기존 제품 혁신 및 파생형 제품 개발

○ **(R&D기획)** 히든챔피언 육성 후보기업에 대해, **1년 이내의 R&D 기획과정***을 원칙적으로 **자동 연계****(100% R&D기획, 중기청)

* 히든챔피언 실태조사('14.10) : R&D 기획 지원 필요성 77.3% (34개사)

** '11~'14년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(156개사) 중, R&D 수혜기업 60% (93개사)

- 산학연 전문가 협력을 통해, **기업별 R&D 목표 및 기술개발 로드맵**을 구체화하고, 전주기 **지식재산(IP) 전략 수립 의무화**

○ **(R&D실행)** 전문적 R&D기획에 따른 **목표 난이도, 기술 파급효과, 사업화 타당성** 등을 종합평가하여, **R&D 실행과제 선정*** (중기청)

* 평가결과 **하위 30%** 기업은 R&D기획 보완을 거쳐 차년도 지원시 재평가

- 중장기과제인 **'월드클래스 300 R&D'**의 경우, 중간평가 단계에서 기술개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**'무빙타겟제*'** 도입·시행

* R&D 수행중에 변화된 시장환경 및 기술흐름을 반영하여 개발목표 조정

3 지역밀착형 혁신 및 성장 인프라 확충

독일 히든챔피언들은 **지역거점별**로 조성된 **산학연 클러스터**에서 대학·연구기관 등과 **신뢰에 기반한 협력·발전관계** 형성

○ **(지역형 강소기업)** 지역기반 유망 중소·중견기업을 발굴하여, **히든챔피언 후보기업으로 집중 육성** ('14.하, 중기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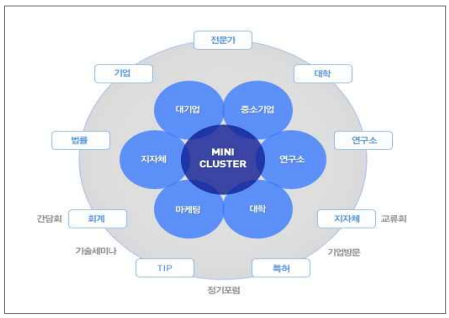
* ('14) 18억원, 4개 지자체 시범운영 → ('15) 100억원, 비수도권 14개 지자체

- 지자체 등 **'지역혁신협의체'가 중심**이 되어, **유망기업 선정**을 비롯하여 글로벌 기업 성장에 필요한 **지역특화 맞춤형 지원***

* 연구개발(R&D), 수출마케팅, 자금, 인력 유치, 경영컨설팅 등

○ **(산학연 협의체)** 산업단지 내 업종별·기술별 **산학연 미니 클러스터*** **(Mini Cluster)** 결성 및 활동 활성화 (산업부)

* 중소·중견기업, 연구소, 대학 등의 기술전문가 **7,200여명**이 활동중



- 미니클러스터 결성을 **지속 확대***하고, 클러스터 **활동실적**을 히든챔피언 전용 **R&D 선정평가 지표**에 반영 ('15.상, 중기청)

* 결성 목표 : ('14) 71개 → ('15) 80개 → ('17) 100개 이상

○ **(융합 클러스터)** 산업단지에 '산학융합지구'및 '산업단지캠퍼스' 조성을 **단계적으로 확대** (산업부·교육부)

- **산학융합지구 확대** : 대학·기업부설연구소·출연硏 등 **혁신지원기관**을 산학융합지구에 **체계적으로 집적화**

* 산학융합지구 지정계획 : ('14) 8개 → ('15) 10개 → ('17) 17개

- **산업단지캠퍼스 조성** : 산업단지 내부에 캠퍼스 일부를 이전하여, 대학과 기업간 **교육-R&D-고용이 연계**된 **산학융합 모델 구축**

* 산업단지캠퍼스 조성계획 : ('14) 9개교 → ('15) 11개교 → ('17) 15개교

3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화 촉진

◇ **틈새시장**에 집중하는 히든챔피언들은 **좁은 내수시장**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, 사업 초기단계부터 **적극적 글로벌화** 추진

* 히든챔피언 평균 수출비율 62%, 평균 2억200만 유로 수출 (H. Simon)

○ **보쉬, 다임러 등**은 숙련기능인이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**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**을 발판으로 **대기업으로 성장**

◇ 국제 무역환경이 **WTO체제**에서 **FTA 중심으로 이행**함에 따라, **기회** (경제영토 확대)와 **위기** (경쟁 및 비관세장벽 심화)가 **상존**

⇒ **세계적 기술력과 품질**을 겸비한 중소·중견기업들이 두려움 없이 **글로벌 시장을 개척·공략**할 수 있는 **여건을 조성**

1 히든챔피언 육성 전용 수출프로그램 고도화

○ **글로벌화 역량단계별 해외마케팅 지원 차등화** ('15.1, 중기청)

- 글로벌 도약·성장 단계에 따라, **지원 목표를 명확**하게 하고, 각 단계별 지원목표*에 맞게 **세부 지원시책 재조정**

* (도약단계) 해외 개척 및 현지 정착 / (성장단계) 세계시장 인지도·지배력 강화

히든챔피언 육성 전용 수출 지원체계 (안)

구 분		글로벌 도약단계	글로벌 성장단계
지원체계	지원목표	• 해외시장 개척 및 다변화	•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
	지원조건	• 최대 3년, 1억원 이내	• 최대 5년, 3.5억원 이내
	지원내용	• 글로벌 경영전략 수립 • 해외브랜드 개발 및 홍보 등	• 글로벌기업과 전략적 제휴 • 해외 M&A 및 현지 투자 등

○ **기업역량 및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** ('15.1, 중기청)

- **기업역량** : 히든챔피언 육성 후보기업에 대해 **'글로벌 역량진단 프로그램*'** 참여를 **의무화** (100% 역량진단)

* 글로벌 역량 진단 +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→ 맞춤형 지원시책 추천

- **기업수요** : 기업 주도의 **창의적 마케팅 과제**를 선정·지원하는 **'新마케팅 프로모션 제도'**를 본격 추진 ('15, 100개사)



2 해외 인증획득 지원 및 현지 혁신거점 구축

○ **(인증획득) "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"**의 규모를 확대*하고, 획득비용 이외에 **갱신 비용(1회)까지 포함** ('15.상, 중기청)

* 지원계획 (개사/억원) : ('14) 1,700 / 133 → ('15) 2,000 / 165

- 품목별 (HS코드)·수출 국가별 **인증정보를 집대성**하여, 수요자 **맞춤형 검색**이 가능하도록 **온라인*을 통해 제공** ('15.상, 중기청)

*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(www.exportcenter.go.kr) 활용

○ **(혁신거점) 해외 수출인큐베이터를 글로벌 BI 형태로 확장**하여 글로벌 창업, 현지 유통망 진출, 해외 건설·플랜트 참여 등 종합 지원

- 특히 **독일, 일본 등 기술력이 뛰어난 지역의 경우, 수출인큐베이터에 R&D협력 센터* 기능을 추가**해 기술정보 측면지원 ('15.하, 중기청)

* ('15) 독일 현지 연구소와 협력하여 시범서비스 → ('17) 3개소 설립·운영

3 글로벌 M&A 활성화 기반 확충

◇ 지멘스(獨), 구글(美) 등 유수의 **글로벌 대기업들**은 개방형 **M&A 전략**을 통해, 약점을 보완하고 **세계지장을 지배**

* 한국형 히든챔피언 중, M&A 경험이 있는 기업이 50% ('14.10 설문조사)

◇ **해외 M&A**는 **역량을 갖춘 기업이 자율 추진**하는 **고유한 영역**임을 감안,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차원의 **'간접 지원'**에 주력

○ **산업자본에 우호적인 M&A 정책펀드 조성 확대**

- '17년까지 **총 1조원** 규모의 **성장사다리 M&A펀드를 조성**하고, **독일·일본 등** 우량 기술기업 M&A **집중 지원** (금융위)

- 중소·중견기업 전용 **Co-Pa 펀드*** **('14. 7,900억원)**를 통해, 유망 **해외기업 M&A에 집중 투자** (복지부)

* Corporation Partnership Fund : 국내기업 해외진출시 국민연금과 공동 자금조성 및 투자

○ **해외기업 M&A시 위험부담 및 자금애로 완화** (산업부)

- **M&A 인수자금, 현지법인의 설비 투자** 등에 대해, 무역보험공사의 **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** 지속 확대

* 해외투자보험 (조원) : ('14) 1.8 → ('15) 2.3 → ('17) 3.6
해외사업금융보험 (조원) : ('14) 4.8 → ('15) 6.0 → ('17) 9.4

○ **글로벌 M&A 중개기관 및 해외 네트워크 확충** (중기청)

- 중견기업이 인수기업으로 참여하는 M&A를 중점 지원하는 **'중견기업 M&A 지원센터*' 신설·운용** ('14.하)

* (기능) 유망 중소·벤처기업 매물 발굴 및 중개, 글로벌 M&A 성공사례 확산

- 해외 주요 M&A 중개기관, 사모펀드, 벤처캐피탈 등을 추가 발굴하여 **'글로벌 M&A지원센터'**의 **해외 네트워크 지속 확대**

4 인재육성 및 장기재직 여건 조성

◇ **(독일 히든챔피언의 장점)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, 대기업 버금가는 근무여건** 등을 바탕으로, **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재직** 가능

○ 대기업 대비 80~90% 수준의 임금수준, 고숙련 기술자(마이스터) 존중,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**안정된 고용환경 형성에 기여**

* 獨 히든챔피언 재직자 평균 근속기간 37년, 취업자 이직률 2.7%(H. Simon)

◇ **(국내 중소·중견기업 현실)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, 대기업과의 근무여건 격차** 등으로 인해, **우수 인재가 중소·중견기업 기피**

○ 직업교육과 기술인을 경시하고, 대기업과 큰 임금격차, 다산다사(多産多死)의 기업생태계 등이 **중소·중견기업 인력수급을 저해**

* 중소기업 평균 업력 10.8년(중견기업 22년), 중소기업 취업자 이직률 15.1%

⇒ **우수한 핵심 인재**는 기업의 **경쟁력을 좌우**하는 **필수요건**으로, **독일 히든챔피언**의 인재 양성 비결을 **적극 벤치마킹 필요**

1 핵심 전문인력(R&D·무역) 양성 및 공급 확대

(1) 고급 기술개발 활동이 가능한 연구인력

○ **'기업맞춤형 계약학과'**를 통해 **석박사급 연구인력** 양성(중기청)

- 중소·중견기업 취업을 조건으로 **석사 학위 취득**(등록금 전액)**과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동시에 지원**(전문연구요원연계형 계약학과)



○ **출연硏 등의 연구인력 및 노하우 활용체계** 구축 (미래부・중기청)

- 출연硏 기술 이전시 기술의 조기 안착을 위해 관련 연구인력이 직접 지원하는 **'성과공유형* 기술이전제도'** 도입 검토 ('15.상)

* 스톡옵션 등을 통해 파견인력과 출연(연)에 일정 수익을 분배하는 방안 검토

- UST (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)를 통한 **'중소・중견기업 채용조건부 계약학과사업'에 참여하는 출연硏 확대** ('14. 5개 → '17. 10개)

* UST-월드클래스300기업 협의회 간 업무협약 체결 ('14.10)

(2) 해외 마케팅에 정통한 글로벌 전문가

○ **차세대 무역전문가 공급 확대** 및 **히든챔피언 채용 연계** (산업부)

- **"청년무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*" 지원규모를 확대** ('14, 24개 대학 760명)하고, 수료생과 히든챔피언・후보기업간 **매칭 강화**

* GTEP (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) : 무역실무 심화교육, 중소・중견기업 무역현장 실습 등 집중 훈련 (15개월간 600시간 교육)

○ **"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"**를 통해, **해외개척 첨병 육성** (산업부)

- 중소・중견기업 **재직자**를 대상으로, **기업의 해외 주재원**으로서 꼭 필요한 **현지 비즈니스 전략 및 정보** 집중 교육

* 코트라・무역협회・중진공 등에 **차별화된 교육과정** 개설・운영 ('14, 305명)

(3) 우수 인재와 히든챔피언 기업간 매칭 강화

○ **「한국 히든챔피언 채용박람회」** 개최 및 히든챔피언 및 후보기업 등과 지역대학・마이스터고간 **"1社-1校" 업무협약* 체결** 확산 (중기청)

* (히든챔피언 등) 지역 우수인재 채용 ↔ (학교)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

○ **민간 취업포탈 서비스*와 연계**하여, 히든챔피언 및 후보기업의 경쟁력 및 재직조건 등 **채용정보를 연중 상시제공** ('15.상, 중기청)

* 잡코리아 (www.jobkorea.co.kr) 등에 **히든챔피언 전용관** 마련

2 재직자 보상체계 확충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

중소·중견기업 **핵심인력 이탈**시, **막대한 경쟁력 손실이 발생***하는 것으로 조사('14.10, 중기연구원) → 핵심인력 처우개선 지원 시급

* 최근 3년간 핵심인력 이직 피해 중소기업 34.5% → 1인당 2.7억원 매출 감소

○ **'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'**(내일채움공제) **도입·운영**(중기청)

-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**공동으로 적립**(인력 : 기업 = 1 : 2이상)하고, **5년간 재직시 보상금 지급**('14.8~)



* 핵심인력 납입금 + 기업 납입금 + 만기이자

* 가입 현황('14.9) : 547개사 1,386명

- '연구·인력개발비'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**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을 포함**('15.상, 기재부)

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개정 사항

○ **'중견기업 전용 희망적금' 3기 추진**('14.12, 중기청)

- 핵심 기술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**'희망 엔지니어 적금***'을 개편, 3기 모집시 **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모든 핵심인력으로 확대** 운영

* 입사 10년차 이내의 R&D인력을 대상으로 5년 이상 장기근속 조건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('13.1~'14.6월 1기, 2기 모집 운영, 1,024개사 2,402명 가입)

○ **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의 장기고용 인센티브 강화**('15.2, 중기청)

-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선정시, **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임금·복지수준** 등을 **평가항목에 반영**하여 우선 지원

- **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**(내일채움공제) 또는 **희망엔지니어 적금**에 가입한 중소·중견기업에게 **우대가점 부여**

3 현장밀착형 직업교육 인프라 확충 및 정착

(1)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도 확대 및 내실화

○ 고용창출 및 인재육성 성과가 우수한 히든챔피언 및 후보기업 등을 발굴, 일학습 병행 **참여기업**을 **'17년까지 1만개로 확대*** (고용부)

*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(개) : ('14) 1,300 → ('15) 3,000 → ('17) 10,000

* 훈련생 보호 등을 위한 『산업현장 일학습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정 ('14.하)

- **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** 참여기업 선정시, 체계적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에 가점 등 **인센티브 부여** ('15.2, 중기청)

○ 일학습 병행제의 기본 플랫폼에 **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**하여, **산업계 주도 시범사업*** 추진 (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심)

* 중견련 내에 '일학습 지원센터' 설치, 기업 주관의 '공동훈련센터' 운영 등

(2)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 시스템 지속 확충

○ **(히든챔피언 수요 반영)** 히든챔피언 및 후보기업의 인재양성 수요를 반영한 **'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' 개발** ('15.하, 중기청)

-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**세부 교육과정*** **마련 및 시범추진**

* (예시) CEO 인재경영 아카데미, 인재육성 로드맵 수립, 연합채용·훈련 등

○ **(한국형 직업학교 육성) 스위스 직업교육**을 **벤치마킹**하여 **도제식 수업**이 가능한 **특성화고*** 등에 시범도입 후 확대 (교육부·고용부)

* '15년 3교 및 '16년 이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확대

○ **(마이스터고 확대)** 마이스터고 성과 확산을 위해, 국가·지역 전략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**마이스터고 지정 확대** 추진 (교육부)

* '14년 기준 마이스터고 42교 지정

5 히든챔피언 육성 정책인프라 구축

◇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임의적으로 히든챔피언 육성을 추진하면서, **수요 기업의 혼선** 및 **재정집행 비효율 우려**

◇ 최근 **월드클래스 300** 프로젝트가 도입('11)되면서, 관련 기관간 **시책연계가 추진**되었으나, 연계지원 **실적은 저조**

⇒ 국내 히든챔피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**"정책 컨트롤타워"를 확립**하고, **숨겨진 글로벌 챔피언을 발굴·인센티브** 부여 필요

1 「(가칭) 히든챔피언 육성·지원 협의체」 가동

○ **(구성)**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·지원과 관련되는 **정부부처** (6)와 **유관기관** (7), **업계 대표단체** (4) 등 참여('15.상)

* 중소기업청장 주재, 정부의 경우 각 부처 1급으로 구성

히든챔피언 육성·지원 협의체 구성 (안)

정 부 (6)	중기청, 산업부, 미래부, 고용부, 교육부, 금융위
유관기관 (7)	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진흥공단, 산업은행, 한국거래소, 산업기술진흥원
업 계 (4)	무역협회, 대한상의, 중소기업중앙회, 중견기업연합회

○ **(운영)** **'전체회의'**는 **반기별 1회 개최**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**'분과별 실무위원회' 수시 개최**

-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을 토대로 하여, **참여기관간** 히든챔피언 **후보기업 선정기준의 일관성 확보**

- 기관간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**DB 공유** 및 **연계지원** 방안* 마련

* (예시) 정책금융기관: 금리·한도 우대, 한국거래소: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및 IR지원 등

2 히든챔피언 성공경험 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

세계시장을 호령하는 **히든챔피언**을 공식적으로 **발굴·확인**하고, 훈·포장 수여 등 사기진작을 위한 **인센티브 제공**

(1) 「한국형 히든챔피언」 발굴·확인 및 성과 확산

○ **(발굴·확인)** 협의체 **참여기관**이 **기업 신청**을 받아 **대상기업 추천** → **히든챔피언 기준** 충족여부를 민관 **공동검증** ('15.하, 중기청)

- 협의체 **전체회의**를 통해 **확정**하고, **'히든챔피언 확인서' 수여**

① 신청 및 추천	② 민관 공동검증	③ 확정·확인서 수여
기업·협의체 참여기관	중기청·무역협회 등	협의체

○ **(성과 확산)** 히든챔피언 **지정기업**의 **성공 노하우**를 엮어 **사례집**으로 발간하고, **히든챔피언 정책포럼*** 개최 ('15.하, 중기청)

* 선배 히든챔피언과 월드클래스 300 등 후배기업간의 교류·소통기회 제공

(2) 히든챔피언의 노력·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

○ **(사기 진작)** 히든챔피언 **확인기업 중**에서 **성과가 탁월한 기업**을 선별하여, 훈·포장 등 **포상 실시** (중기청)

- 온·오프라인에 한국형 히든챔피언 **"명예의 전당" 설립, 헌액**

* (온 라 인) 국·영문 전용 홈페이지 개설 및 히든챔피언 기업 소개
(오프라인) 종합 전시공간 마련(국내), 코트라 무역관에 홍보부스 설치(해외)

○ **(부담 완화)** 히든챔피언 확인기업의 경제적 기여 등을 고려하여, 히든챔피언 지원 **유관기관*** **프로그램에 자동연계** 추진 (중기청)

* 자동연계 기관(예시) : 중기청, 한국거래소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 등

Ⅴ. 기대효과 및 실천계획

1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

□ **(정책목표) 한국형 히든챔피언** ('13) 63개 → **('17) 100개 이상**

○ 이를 위해,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**후보기업 발굴·지원 확대** : ('14) 634개 → **('17) 1,150개 이상** (누적)

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발굴·지원 계획 (안)

구 분		'14년 (누적)	'17년 (누적)	비 고
글로벌 도약	글로벌 강소기업	380개	500개	
	지역형 강소기업	30개	300개	
글로벌 성장	월드클래스 300	156개	350개	* '15년부터 통합지원
	글로벌 전문기업	68개		
합 계		634개	1,150개	

□ **(기대효과) 한국경제의 패러다임**을 대기업 위주 **산업경제**에서, 히든챔피언을 중심으로 한 **'창조경제'로의 전환 촉진**

○ 글로벌 **"30-50클럽*"의 위상**에 맞는 **국가대표 중소·중견기업** 육성을 통해, **일자리 창출과 수출의 롤 모델** 제시

* **1인당 GNI 3만불 이상**이면서 **인구 5천만명 이상**인 경제대국을 의미, **우리나라**는 미국·독일 등에 이어 **'15년중 세계 7번째로 가입 예상**

○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**히든챔피언 증가**를 통해, **한국경제의 허리를 두텁게** 하고 원활한 **기업 성장사다리를 조기에 복원**

2 세부과제별 실천계획

◇ 한국형 히든챔피언 **성공 사례 발굴·홍보**를 통해, **히든챔피언을 중소·중견기업의 최상위 성장 롤 모델로 제시**

◇ **과제별 후속조치계획**을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

정책 과제	주관·협업부처	시행시기
1.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육성체계 정비		
1-①-①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통합공고	중기청, 산업부	'15.3
1-①-②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육성사업 재편	중기청, 산업부	'15.1
1-①-③ 글로벌 성장단계별 쿼터제도 마련	중기청, 산업부	'15.2
1-②-① 글로벌 성장단계별 신청자격 재설계	중기청, 산업부	'15.1
1-②-② 글로벌 성장단계별 지원내용 차등화	중기청, 산업부	'15.1
2.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기반 확충		
2-① 히든챔피언 육성 전용 R&D프로그램 재설계	중기청	'15.2
2-② 한우물파기가 가능한 R&D 지원체계 구축	중기청	'15.2
2-③-① 지역형 강소기업 발굴·육성	중기청	'14.하
2-③-② 산학연 미니클러스터 활성화	산업부, 중기청	계속
2-③-③ 산학융합지구 및 산업단지 캠퍼스 확대	산업부, 교육부	계속
3.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화 촉진		
3-①-① 글로벌 단계별 해외마케팅 차등 지원	중기청	'15.1
3-①-② 기업역량·수요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	중기청	'15.1
3-②-①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제도 개선	중기청	'15.상
3-②-② 글로벌 혁신 거점 구축·운영	중기청, 관계기관	'15.하

정책 과제	주관 · 협업부처	시행시기
3-3-① M&A 정책펀드 조성 확대	금융위, 복지부	계속
3-3-②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 금융보험 확대	산업부	계속
3-2-③ 글로벌 M&A 중개기관 확충	중기청	'14.하
4. 인재육성 및 장기재직 여건 조성		
4-1-(1)-① 계약학과를 통한 연구인력 양성	중기청	계속
4-1-(1)-② 출연연 연구인력 및 노하우 활용	미래부, 중기청	'15.상
4-1-(2)-① 차세대 무역전문가 공급 확대	산업부	계속
4-1-(2)-② 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 확대	산업부	계속
4-1-(3)-① 히든챔피언 채용박람회 및 1社-1校 협약	중기청	계속
4-1-(3)-② 민간 취업포탈과 채용정보 연계	중기청	'15.상
4-2-①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·운영	중기청	계속
4-2-② 중견기업 희망엔지니어 적금	중기청	'14.12
4-2-③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장기고용 유도	중기청	'15.2
4-3-(1) 일학습 병행제 확대 및 내실화	고용부, 중기청	계속
4-3-(2)-① 히든챔피언 전용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	중기청	'15.하
4-3-(2)-② 한국형 직업학교 도입·확대	교육부, 고용부	계속
4-3-(2)-③ 마이스터고 전환 단계적 확산	교육부	계속
5. 히든챔피언 육성 정책인프라 구축		
5-1 히든챔피언 육성·지원 협의체 가동	중기청, 관계기관	'15.상
5-2-① 한국형 히든챔피언 발굴 및 성과 확산	중기청	'15.하
5-2-② 히든챔피언의 노력·성과에 대한 보상	중기청	계속